

<2022년 5월 15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며 살아가

[시대 성경]

너를 돕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은
나 여호와와 목적을 이루는 데 쓰라고 준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고,
필요한 때마다 참으로 너를 돕고,
성령과 함께 은혜를 베풀고 축복함은
나의 목적을 배웠으니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쓰며,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라고 준 것이니라.

너만을 위해 살라고 참으로 돕고 주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만물과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라고
참으로 돕고 주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먼저 <시대 본문 말씀>을 풀어 말씀해 주겠습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축복해 주시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매일, 필요할 때마다
 <참으로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쓰고 살라 함입니다.
-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그 뜻대로 절대 사랑하며,
 <육신 일생>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고,
 <그 영혼>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라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매일 돕고 축복해 주십니다.
-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돕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만 쓰며 사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 가령,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같이 사랑하며 사는 목적>을 두고
 전심으로 ‘각종 것’을 퍼부어 주며 돕는데,
 <상대>가 그 도움을 받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쓰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전심으로 돕겠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너희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역시,

<진리를 알고 사망권에서 나와서 생명권에 사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목적을 위한 기회>로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기회>를
<자기 목적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 시대 복음>으로 택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세계에 매어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 살게 하심>은

<우리 육체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같이 사는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 <사랑하는 자>가 여행을 하다가 ‘경비’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겨우 ‘경비’를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이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경비>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로 다른 자들과 다른 나라로 또 여행을 가면,
이제 ‘경비’를 다 써서 못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각자 <자기 목적>만을 이루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삶의 답’을 받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근성의 근본 문제>를 뿌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위한 삶>에서 끝나게 되어
<좋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 <말씀>을 듣고
<은혜>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일 기뻐 기도하며 써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하며 ‘삶’을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려고 섭리사에 택해 온 자>를
<자기 목적>을 위해 써서도 절대 안 됩니다.

-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 된 굳건한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며,
<모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중심하며,

〈모든 기회〉를 ‘그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해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기회와 재능과 물질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며,
‘그 몸’도 ‘마음’도 ‘생각’도 써야 됩니다.

- 〈시간의 기회〉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룹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람〉과 쓰면 ‘사람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쓰면 ‘하나님과 성령님 시간’이 된다.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못 만난다.

그러므로 〈시간〉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써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시간〉을 ‘사람과 세상’을 접하면서 쓰지만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노는 데만 쓰고,
 ‘자기 삶’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쓰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됩니다.

<운동>하는 데 쓰면 ‘운동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데 쓰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미디어>하는 데 쓰면 ‘미디어하는 시간’이 됩니다.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써야,
 ‘최고로 가치 있고 영원한 시간’으로 쓰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써야

‘최고로 가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쓰게 됩니다.

<자기 시간의 기회>로만 삼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못 이룹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심>은
 <창조 목적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니,

<삶의 모든 시간>을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매일 잊지 말고 살아야만
<하나님과 성령님>이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매일 도와주시며 채워 주시는 것들>은
<자기 삶>만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살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목적>을 위해 전심으로 살면,
그 안에서 <자기 목적>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 <구원의 역사>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면 절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돕고 함께해 주셔도,

<그 도움>을
<자기 생각>을 이루는 데 쓰고 <육>을 위해서만 쓰면,
‘육’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도 살려 주시고,

〈각종 사고〉에서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경제 축복〉과 〈건강 축복〉을 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 삶〉을 사는 데만 쓰고 사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목적〉도, 〈자기 목적〉도 제대로 못 이루고,
〈문제〉가 생기고, 〈삶〉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삶’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고,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데 써야 됩니다.

- 〈자기에게 오는 모든 좋은 기회〉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을 위해 쓰고 살면,

▶ 〈하나님의 목적〉도 이뤄지고,
그 안에서 〈자기 목적〉도 이루어집니다.

▶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어
더욱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 <기회>가 오는 대로
 <신앙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 <좋은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두고 행해야 됩니다.

- <시간>을 써도
 <자기 시간>으로만 쓰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 선생님은 15세 때부터 인생을 <자신의 기회>로 쓰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썼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두 바치고 썼고,
 <시간>도 짧은 날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다 썼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쓰고 <육신>을 위해 썼으면,
 <육>으로도, <영>으로도 잘되고 형통하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돕는 대로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쓰며 살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이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뤘습니다.

-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역사 6000년〉을 펴시고,

〈마지막 천 년 역사〉를 펴시며 돕고 함께하시는 목적은

〈인생들이 육신이 좋은 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항상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시니,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해 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